

< 콩쥐팥쥐 >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편찮으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없었지만 콩쥐는 깊은 효심으로 아버지를 열심히 모셨습니다.

아버지: 콩쥐 네가 어미도 없이 고생이 많구나...

콩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편찮아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 진지 드세요.

아버지: 그러자꾸나.. 너도 어서 뜬어와 같이 먹거라.

콩쥐: 아버지 맛이 드세요. 그래야 저와 오래오래 사시죠..

그러던 어느날, 콩쥐의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홀로 고생하는 콩쥐가 안타까워 배씨 라는 과부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콩쥐의 새 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쩔수없이콩쥐는새어머니와함께팥쥐도한집에서살게되었습니다. 착하고마음씨고웁콩쥐에반해서팥쥐는욕심이맞고자신밖에모르는 심술쟁이였습니다. 새어머니는콩쥐의아버지가없을때콩쥐에게더욱더힘뉘일을시키며심술을 부렸습니다.

새어머니:아니,콩쥐콩쥐너도대체어디있는게냐??

콩쥐: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팥쥐: 시킬 일이 있으니까 불렀지! 널 왜 부르겠어?? 흥!

새어머니:나는지금팥쥐와시장으로장을보러갈것이니,너는발에가서발을메고 오너라.

콩쥐:그큰발에저혼자서요.....?

새 어머니: 왜?! 그것도 힘든다는 것인게야? 짹소리 말고 끝내놓거라.

콩쥐: 네... 어머니....

하루도 빠짐없이, 새 어머니와 팥쥐는 콩쥐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면서 자기들은 시장에 가거나 마실을 다니는 등등 콩쥐에게 나날이 힘든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하루는 새 어머니가 콩쥐에게 또 다른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콩쥐: 어머니, 어디 가세요?

새어머니:그래,내지금팥쥐와장에좀가봐야할듯싶구나.

팥쥐: 어머니가 새로웁 치마 저고리를 사주신다고 해서 말야. 후후후

콩쥐: 그러면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저도 장에 나가본 지 오래되었어요, 어머니.

새어머니:너는다음에가거라.집안에할일이이렇게쌓여있는데장에가다니니?!흥!

콩쥐: 그래도...어머니...

새어머니:너는옆집김씨네서옷감을가져다가바느질을해놓고있거라.뚝고 있는게냐?

콩쥐: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새 어머니의 어떠한 말씀에도 콩쥐는 그저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 마을에 원님의 생일잡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져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계모와 팥쥐 모녀는 원님의 생일잡치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콩쥐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새 어머니에게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 이었습니다.

콩쥐: 어머니, 오늘 원님의 생일잡치가 있다쥬?

새어머니:그건네가왜묻는게냐?

팥쥐:맞아.네가알아도년못가는데?하하하하

콩쥐:어머니저도함께갈수있게해주세요..그동안집박을나가본지가너무오래 되었어요..

새 어머니: 아니 너는 정신이 있는게야 없는게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있는데!! 원님의 생일잔치에 가겠다고?!

콩쥐: 어머니.. 이번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새어머니:좋다.그렇다면저기저옆에있는독에물을가득채우고,또좁쌀도먹기

종게다골라놓고오너라.아한가지더,베도짜놓고 그것든막한다면내허락을하마. 콩쥐:

네어머니...빨리해놓고저도곧갈게요..

하지만 새 어머니가 얘기한 일들을 쉽지 않았습니니다. 독에 물을 열심히 부어도 독에 물은 차지 않고 시각은 곱절로 걸렸습니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니다. 두꺼비는 깨져있는 독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독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참새가 나타나 좁쌀을 고르는 일을 도와주고 베를 짜는 일은 하늘에서 선녀가 나타나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옷과 꽃신을 주고 돌아갔습니니다.

선녀가주고간그예쁜옷을입고 꽃신도신고콩쥐는원님의생일잔치를보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콩쥐가 시냇가를 걷고 있을 때 그땀 꽃신 한 짝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콩쥐: 아..아니... 내 꽃신... 어찌지...

그때원님이행차하다가콩쥐가시냇가에빠뜨린예쁜꽃신을보고그의하인에게꽃 신의 주인을 찾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인은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 꽃신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일이 지나도록 그 신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원님과 하인은 마지막으로 콩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인: 계시오~~~ 잠깐 다든 나와보시오~~

새 어머니: 아니, 무슨 일이오??? 하인:나는원님과함께이꽃신의주인을찾으러왔소.

이집에이꽃신을신을맡한사람이있소?

새 어머니: 있지 그럼. 팔쥐야~~~

팔쥐: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새어머니:원님께서이꽃신의주인을찾고계신다고하구나.네가한번신어보거라. 팔쥐: 어머니.. 제 발에 너무 작아요..

원님: 허허... 도대체 이 신의 주인이 누구인고... 콩쥐: 내가 한 번 신어보겠소..

그 때, 콩쥐는 그 꽃신이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자기가 꽃 신을 신어 보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콩쥐가 꽃신을 신자 신기하게도 콩쥐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콩쥐는 미소를 지으며 꽃신을 찾은것을 기뻐했습니다. 팔쥐는 꽃신이 발에 맞지 않을 것을 아쉬워하며 울기 시작했고, 원님은 콩쥐의 아름다움 미모와 마음씨에 반하여 둘을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